東大新聞

發行人 金東都 益泳
編輯人 南 赫 蘇
主 幹 宋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㉖3130~9
本社直通 ㉖8498

每週月曜日發行

今週一言

허름이 있거든 곧 참회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데에 대장부의 기상이 있다. <선가귀감>

다가온 學期末試驗

28日부터 7月12日까지

例年과 달리 講義時間에 全學年 전과목에 걸쳐 實施

1971학년도 제1학기 학사일정은 1학기말 시험이 발표됨으로써 거의 끝나 가고있다. 교무과는 1학기말 시험을 金學年, 金科目에 걸쳐 오는 28일부터 7월12일까지 2주일간 강의시간을 이용, 시험을 치르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시험은 예년과 달리 시험방법을 달리하여 시험시간표를 발표하지않고 평소의 강의시간에 고사시간을 배정, 담당교수가 이와같은 조치는 그동안 잦았던 결강을 보충하며 學期중강하는 사례를 없애고 일부교수들이 강의시간에 못나오는 요인을 최대한으로 제거하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적된 기간중 각과목 교수들이 정한 날짜에 수업을 하면서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문제도 담당교수가 고사당일에 직접 가지고 나와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양과목과 학급당(합동강의) 학생수가 많은 일부 전공과목은 종전대로 시험시간표를 발표하여 실시한다.

한편 군사교육과목 및 禮學실습은 출석만으로 학점을 인정하고 시험은 안치르기로 했다.

이번 학점 인정은 교양과목 및 禮學실습은 출석만으로 학점을 인정하고 시험은 안치르기로 했다.

동문國會議員 환영 24日, 同窓會서

동창회에서는 오는 24일 오전10시 신문회관 6층에서 본교출신 국회의원 5명의 당선자 환영회를 갖는다.

이날 환영회에서는 동창회 간부를 비롯 교직원및 졸업생회 회장단이 참석, 모교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은 최재구·김은하·오중열·유성범·최형우등분과 이해랑 교수등이다.

李鍾益교수 佛敎서적7권寄贈

불교대 李鍾益교수는 지난 15일 佛敎관계 서적(日譯) 7권을 본교 도서관에 기증했다.

이번 기증도서는 日本의 불교사상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일본佛敎사상을 비교하는데 귀중한 참고문헌들이다.

다음은 기증도서 목록(괄호안은 著者名)

▲등양사상과 서양사상(三枝充悳) ▲인도고대史上下(中村元) ▲등양인의 思惟方法 (中村元) ▲등양인의 思惟 (中村元) ▲佛敎思想 (金四卷) (中村元)

敎化事業후원회= 副會長 法眼스님 집행위원장 金仁鴻교수

불교敎化사업후원회(회장·金東益총장)에서는 지난 8일 총무원 결의로 부회장에 吳法眼상무이사와 李梵行스님(佛國寺주지), 집행위원장에 金仁鴻도서관장(법경대교수)을 위촉했다.

본 후원회 임원들은 현재 당면한 중앙 교화사업 연구를 적극후원하며 그밖에 총무원교무부의 자문에 응하고 있다.

學風정화 운동 展開 總學生會 各써클 협조 얻어

불교학생회총연합회(회장=南基一)에서는 임교내美化작업 ②선거정풍③풍정화운동을 전개, 자발적인 대학풍토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교내 각써클및 교양학부 대의원들의 협조를얻어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전개되는 이번 캠페인은 교내美化작업에 중점을 두고, 그밖에 선거정풍, 시험분위기 개선등에 주력하게 된다.

이번 캠페인은 명랑한학원풍토 조성의 일환으로 ①교내美化작업 ②선거정풍③시험분위기 개선 ④도서관분위기 개선 ⑤뺏지달기운동등을 권유하는 정화운동을 벌인다.

교내美化작업을 위해 각써클별로 청소구역을 정해 캠퍼스 쓰域에 결쳐 대일조기청소를 실시함은 물론 식수에 물뿌리기, 잡초제거 등을 벌인다.

「새로운 기풍으로 채워사를 창조하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던 총학생회(회장=南基一)에서는 지난 마지막 캠페인으로 학풍정화운동을 전개, 자발적 시험분위기 개선 ④도서관 ⑤뺏지달기운동등을 권유하는 정화운동을 벌인다.

교내美化작업을 위해 각써클별로 청소구역을 정해 캠퍼스 쓰域에 결쳐 대일조기청소를 실시함은 물론 식수에 물뿌리기, 잡초제거 등을 벌인다.

東國65년의 자료협조의뢰 65년사편찬위원회

東國65년의 발자취를 서두르고 있는 본교 65년사 편찬위원회(위원장=金東益총장)에서는 보다 정확한 연혁및 시대적 발전사를기획하고자 관계기관에 기본자료 협조를 의뢰했다.

東岳語文論集7집 東岳語文學會서

東岳語文學會(회장 李丙燾박사)에서는 「東岳語文論集」 제7집을 발간했다.

지난 1965년 창간된 이래 해마다 발간되고 있는 이論文集은 교수와 등 문화원들의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있는데, 제7집에는 총2백50여페이지에 李丙燾교수의 「杜甫詩연구」, 孫八洲등분의 「盛國文學上의 白居易」, 徐高洙등분의 「訓民歌연구」, 具滋樂등분의 「弄丸考」 등이 실려있다.

金總長, 30日頃 歸國 世界學大總長會議 相互交流다짐

이달이 얼마만큼 확고한 것인가에 따라 한문의 綴化가 기대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연설요지는 별항)

세계대학총장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 총장일행은 19일부터 「가나」「다호메이」「아이보리 코스트」「나이제리아」등각국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들 4개국을 순방하면서 그 나라의 실정에 따른 교육문제를 토의한다. 金총장은 27일까지 이러한 공식일정을 마치고, 「런던」과 東京을 거쳐 30일경 귀국할 예정으로 있다.

◇金총장 演說文 요지

동국대학교는 1,6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유일한 불교의 정통상속자로서 불교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국민의 국가 독립과 사회 민대화의 큰 기둥노릇을 해왔다. 우주개발과 전자공학의 놀라운 연역에도 불구하고, 풍요한 대량 생산과 범세계적인 의사 소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의 가장 오랜 무서운 적인 증오, 폭력, 빈곤, 무지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인구폭발, 스뉴멘트 파워 같은 새로운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고의 행복과 평화와 자유인 해탈을 얻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위대한 교사인 부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세가지 악인 탐실, 진실, 치심을 버리고 바로화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다. 동국대학교는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항상 새롭게 해석하여 현대생활에 적응한다는 목표를 갖고 노력해와서 만숙스러운 업적을 이룩하였으며 지금도 우리의 정신적, 문화적 유산을 연구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에 최신의 방법론을 습득하고 있다.

여러분의 지식과 우리의 지식을 교환하고 여러가지 학술계획에 우리의 협조해 주도록 초청하게 된 것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동국대학교는 불교와 한국에 관심을 가진분에게 언제나 개방되어 있고 그 번뇌를 환영한다.

學生證지참 學生會 선거일에

학생과에서는 출학생회선거를 앞두고 선거당일에 학생증이 없으면 선거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樂蛇의 亂」을 치른 서 말할 수 없지만 그 후 이조는 전쟁의 뒷처리인 강화문제도 큰 일이었다. 강화 수신사로 나아갈 어느 한 사람에는 泗溟스님이 없어 현해탄을 건너게 되었다. 이에 泗溟스님은 그 당시의 교 士頭가 없어 그 사람의 계의 사고방식과 사상의 溟스님이 전쟁의 마물을 겪을도 없어 현해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예전에 불교를 배우는 이들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않고, 부처님의 행동이 아니면 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 泗溟스님이 講義하는 다 여기 있는 다 여기 있다고 한다면 인간이 나태와 안일 속에 쉽게 살려는 사고가 많아지기 때문인가, 어이 없는 것이다. 세상이 영원한것이 아니다. 진리가 영원한 것이고 보면 진리에 진인하여 자기삶의 기세계를 창조하는 진리와 해후하는것에 비할수 있을가.

우리가 일생을 통하여 단 한번의 해후를 갖여도 좋다. 知己이면 幾人이던 그무엇이라도 좋다. 한번의 만남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해후를 위하여 자기內面의 거울을 닦아야 한다. 西山의 말씀과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행동이 만나는곳에 우리 함께 우뚝 서 보자.

〈睦哲宇〉

보리수

◇ 한 번의 만남 ◇

學風정화 운동 展開 總學生會 各써클 협조 얻어

學門을 여는 知性의 발길

글·朴男濬기자
사진·李春滿기자

演劇映畵科 제2회 高校演劇경연 申請마감 8월31일

演映科에서는 본사와 공동주최로 제2회 전국 남녀고등학교 연극경연대회를 오는 9월15일부터 개최키로 했다.

연극 본연의 모습인 자아형성 표현과 진지한 조의지를 창달하여 민족주의 교육목적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학생연극의 부활과, 한편 총학생회에서는 이번 학풍정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시키기 위해 프랑카드 게시및 유인물을배포한다. 다음은 이번 정화운동에 적극 참여키로 한 써클 명단.

▲길 ▲KUSA ▲동국사상연구회 ▲학술연구회▲KCCID ▲등어론연구부

東大新聞社 제9회 學術賞作品募集

本社에서는 大學의 「아카데믹」한 氣風의 조성과 學生들의 學究的 기를을 더욱 堅固히 하고 創意力을 북돋우기 위해 「學術賞」을 制定하여 금년에 제9회로 접어들었읍니다. 특히 이번에는 賞金을 引上하고 力量있는 學生여러분의 참신한 作品을 기대하고 있읍니다.

◇學術賞 作品種類

▲人文社會科學賞 ▲自然科學賞
▲創作文學賞

◇應募要領

▲人文社會科學, 自然科學分野=60枚外 (所屬學科 學術硏究論文에 한하며, 원고는 主任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함)
▲創作文學分野
<詩>5편이상 <小說>60枚이내 <戲曲>60枚이내
▲應募資格=本校在學生에 限함
▲審査委員=本社에서 위촉하여 當選作發表와 함께 발힐
▲施賞=各部門別 상장및 상금 2萬원
▲作品제출기간=9월20일부터 30일까지
▲當選作 발표=10월中 本紙上

1971년 6월

社告

接受는 9月20-30日

本校농구부 大學部 5位에

본교 농구부는 지난 14일부터 열린 제26회 전국남녀종별농구선수권대회에 참가, 준결승에서 아깝게 탈락, 대학부 5위를 마크했다.

男大部 10개팀이 참가한 이번대회에서 본교팀은 15일의 對명지대戰에서 70대 59로승리, 신예팀으로서 효자를 보였으나 17일에 열린 對연세대戰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해 준준결승에서탈락했다.

法友會 정기총회 獎學金마련등 검토

新國學舍(佛敎科寄宿舍) 졸업생으로 구성된 「法友會」에서는 지난 20일 오전10시 기원학사 大法堂에서 회원 50여명이 모여 우에 50년 定期總會를 갖고 임원개선및 사업계획등을 검토했다.

동문및 在舍生들의 유대강화를 위한 본회의 금번 총회에서는 회장에 李外潤(경기大교수·1期졸업) 同門을 유임시키는 한편 간사장에 睦哲宇(佛敎大강사) 등을 새로이 위촉하는등 임원개선을 갖고 會誌인 「新國」의 再발간과 在舍生奬學기금마련등의 활동계획을 결정했다.

▲회장=이의윤 ▲선진규·박완일 ▲목철우(간사장)·오형근·라동영·박광도·이재형·고익진·권오현 ▲부회장 ▲간사=

東國敎養원고모집 9월20일까지

교양학부 학생회에서는 등국교양」제2집 발간을 앞두고 원고를 모집한다.

내용은 학술논문 50매내외의 (2백자원고지) 문학평론 50매내외의 소설 60매등과 시·수필·제언·기타 작품은 2편이내로 오는 9월20일까지 교양학부교학과 편집담당자앞으로 제출하면된다.

「東思」修練대회 참가신청 받아

東國思想연구회는 정기夏

카톨리릭醫大와體典 佛敎學會회원들

佛敎學會에서는 지난 13일 오후 1시 카톨릭대학교정에서 신학대학생과의 친선축구대회를 가진다음 파담회도 가졌다.

兩敎학생간의 대화와 친선도모를 위한 이번 모임은 蘇碧岩이사장과 徐京保불대학장의 후원에 힘입어 兩대학공동주최로 열린것인데 축구시합과 담소회를 즐겼다.

農村振興廳에 10명合格 農大農學科졸업예정자등

지난 13일 실시된 이번 제4급 농촌진흥청 영우(農4)군등 졸업예정자 5명과 졸업생 5명이 평균 4대1의 경쟁율을 뚫고 農學科 졸업예정자및 농학도의실력을 과시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번 시험에서 김 영우(農4)군등 9명은 대학 춘진흥청 연구직 시험에합격한 이들은 농촌진흥청에서 배운 이론과 기술을 통해 농촌근대화에 이바지하게되는 네, 본교에서는 매년 10여명의 합격자를 내보내고있다.

다음은 졸업예정자중에 합격자 명단.

▲김영우(농·4) ▲성기석(〃) ▲김성욱(〃) ▲이명윤(〃) ▲김홍선(〃).

敎授動靜

▲車鉉煥교수(佛敎科)=지난해 8월 연구차 滅美, 지금 「로스앤젤레스」市 「샌프란시스코」市 「샌프란시스코」市 「샌프란시스코

社說

여름방학 設計를 뜻있게

대학에 있어서 이번 여름방학은 대학생들을 가장 믿음직한 대학생의 사명 역시 무겁고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대학생들은 규격화 되어있는 강의와 캠퍼스를 벗어나 자유스러운 의사에 의하여 선택된 자기생활의 목적지로 각기 떠나게 된다.

근 두달에 걸친 긴여름동안 학문의 전당 밖에서 생활한다고 해서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있는 귀중한 긍지를 잃어서는 아니된다.

방학은 학문 연구의 계속이요, 대학생활의 연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자기 발견과 확립의 기회로 삼아 내적 성숙을 꾀하는 동시에 사회참여와 사회에의 봉사와 사회에의 헌신에 좋은 계기가 되어야 한다.

「방학은 자유로운 계전」「방학은 나의것」이라해서 그 마음가짐과 몸가짐,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자유방종에 흐른다거나 해이하고 나태한 생활 습관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근자 대학생들 중에는 자기 향상발전을 위한 지성의 함양이나, 인격의도야 보다는 청춘을 향락하는 데에 힘을 기우리는 것 같은 풍조가 많이 엿보이는데, 이것은 정말로 유감스러운일이라고 본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기성세대들이 가지는 낡은 학생관이라고 탓할지 모르지만 이나라의 <엘리트>가 될 대학생들에 대한 기대가 심중에 사로 잠기기도 하는 것이다.

방학을 맞이하여 국민전체가 제일먼저 걱정하고, 관심의 촛점을 두는 곳은 초·중·고등학교의 어린이나 학생들보다 대학생들의 생활면이다. 3천만의 여러 대학생들의 정신 자세와 연령을 많이 하고 그리고 맑은 눈동자는 없이 주시하고 있다.

그것은 대학생들을 경원하거나 적대시하거나 또는 불순하게 볼에서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대학생들을 가장 믿음직한 대학생의 사명 역시 무겁고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아무런 제재나 구애없이 자유스러운 향의 설정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관여 간섭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다만 그들이 사회질서를 엄격히 지키고,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준수선양하며,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얼마만큼의 이로운 일을 하나? 에 문제성이 있는 것이다.

차분한 마음으로 겸손에 다하지못한 학문의 헛점과 욕구를 메꾸기 위하여 올돌한 계획하에 진지하게 연구에 돌입할 것이요, 우리는 그들을 밀폐식스러운 대학생이라고 본다. 농·어촌 지역사회에나가 그들의 낙후된생활을 개량 개선하여 근대화된 문화생활을 누릴 수있게하며 그들의 건강관리와 절병치료에 하등의 대가나 보수를 바라지 않고 정성껏 희생적으로 봉사할때 우리는 절대적인지지와 최대의 경의와 뜨거운 박수를보낼 것이다.

이때에 대학생들은 대학생다운 높은 긍지를 가지게되고, 호뭇한 마음과 인간으로서의 참된 뜻과 보람을 느끼게 되리라. 동시에 사회참여 의식은 고조되고 인간으로서의 自信力이 생기며, 새로운 대학생상이 뜨렷이 부각될 것이다.

대학생은 대학생다운<덧>과<맛>을 알아야한다. <낭만>을 알고 느껴야한다. 학문 연구에 골몰하고 사회참여도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서 대학생다운 대학생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대학생은 인생의<꼭>을 넘월을 알아야 한다. <덧>과<맛>과<낭만>을 알고 지녀야한다.

뜻을 같이하고 마음이 맞는 남녀학생이(3명또는 5명) 짝이 되어 빈틈없는 계획하에 전국의 명승고적을 두루 다니며 조상들이 남긴 위대한 업적과 교훈을 살펴, 옳고 추앙의 정을 가져도 보고, 심산유곡 고봉준령을 탐사하여 浩然之氣를 돋우며 때로는 산간벽지 구차한 농가에 머물어 보기도 하는것은 대학시절에 있어서의 있음직한 일이요, 그렇게하는 동안에 자아를 발견하고 자기심화, 자기형성의 계기가된다.

인생의<꼭>이 넘어지는 동시에 대학생다운 기질과 풍모와 멋이 풍기게 되고 거기에서 인생의 아름다운<낭만>이 조성되어 평생을 두고 잊혀지지 않는 달콤한 回想曲이 될 것이다.

즐거운 방학, 모든 것에서 해방될 방학은 닥아오고 있다. 우리 모두 알찬 내일과 보다나은 대학생이 되기위해 다채롭고도 실천성 있는 설계를 하여, 보람된<삶>과 인생의<꼭>을 넘월에 인색함이 없는<덧>과<맛>과<낭만>을 체득하기에 앞맞는 방학설계를 하기 바란다.

美國의 中共接近과 아시아

鄭 鎔 碩 (政治學博士 法政大강사)

지난 4月初 中共의 招請을 받고 美國 卓球팀과 記者들이 中共땅에 발을 딛게 되므로써 世界의 興論은 날카 뒤집혔다。그後 世界 情勢變化에 대한 구구한 억측과 恍惚한 期待가 「매스컴」의 脚光을 받게되었다。

中共側의 立場으로 보면 우선 蔡聯과의 對峙에서 美國의 中立을 얻게되고 U·N가입을 위하여는 美國의 支援을 받게 되리라는 心算에서 나왔다고 보겠다。

反面 美國의 國家利益이라는 각도에서 살펴보게되면 대략 人口 7억이나 넘는 市場、中共承認國家의 漸增、越南戰爭終決을 위한 분위기 조성、그리고 中共을 國際社會의 一員으로 끌어들임으로 해서 國際道義에 準하도록 하자는것、等의 面을 꼽아볼수가 있다。

그러나 한가지 疑論되지않고 있는 重要한 事實이 있다。1960년代後半부터 거세게 일기시작했던 美國民들의 反「아시아」感情을 뒤바꿔보려는 政略的「제스처」라는 點이다。월남전의 擴大에 따르는 「달러」와 人命의 손실은 美國民들의 反「아시아」感情을 달래어야만 할 착잡한 心境에 쌓인 美行政府가 最善의 策으로 考慮해낸 智略이었다。

다시 말해서 世界에 擴散되어있는 美軍의 數를 減縮하므로서 赤字財政에 대달린 政府를 財政的으로 救出하는데 들기도하고 「아시아」의 防衛는 아시아의 손에 맡기고 美國은 물러서겠다는 「슬로건」을 내 놓으므로해서 경찰을 수 없이 치르는 反「아시아」思想을 갈아 앉혀 보겠다는 意圖에서였다。

駐越美軍의 대량撤收와 「칼島의 宣言」은 一段 反「아시아」「무드」를 撫摩하는데 成功은 하였으나、이것으로 因하여 冷却해지기 始作한 美國의 對「아시아」關心은 加速的으로 식어져만 갔다。

이 趨勢가 상당한 期間 동안 지속된다면 아마도 美國은 「아시아」全域으로 부터 完全히 손을 거두어야할 心理的境地에 이를지도 모른다。太平洋을 內海로 삼아야 한다는 傳統的인 美國의 對亞政策을 轉倒하는 結果가 될 뿐만아니라 現在「닉슨」行政府가 버티고 있는 아시아의 諸友邦에 대한 防衛任務도 내던져야할 輿論의 壓力에 몰리게 될 것이다。

무섭게 닥칠 위의 두 가지 破局을 피하기 위한 問接的措處로서 우선 싸늘하게 식어져가는 美國의 對亞關心에 다시 活力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劇的인「쇼맨쉽」이 必要했던 것이다。

美國民의 國家的關心을 다시 「아시아」로 向中시키는 일이다。이러한 効果를 노리려고 構想된것이 劇的인 對中共「어프로치」였다고 하겠다。中國大陸에 關心을 쏟게 하므로서 「아시아」로 돌려다시 「아시아」의 關心을 또 한번 招請하면 快諾할 의향이 있다느니 中共이 몇천대의 美國 젯트旅客機를 사들였지도 모른다는 等의 「루머」도 흐르는 「슬로건」을 「打倒」라는 「美帝國主義 强하게 되었다。그러나 이것은 「抽象的인으로 해석하기도 했다。물론 쏟아져나온 記事의 洪水는 焦點을 흐리게 하였다。萬若 周恩來가 「닉슨」을 招請하면 中共은 「美國과의 解氷」「무드」에 접어든지 두달이 지나도록 「매스컴」을 通하여 「슬로건」을 「打倒」라는 「美帝國主義 强하게」로 되었다。

이렇게 될때 우리의 外交網은 東과 西로 넓혀갈수 있는 積極的인 統一게 될것이고 平和的인 統一게 되면 「國際緩和」가 이루어지는 「國際緩和」가 이루어지는 「國際緩和」가 이루어지는

佛青運動 51年 그어제와 오늘

◇……지난 20일로서 大韓佛敎青年會는 창설 51…◇
◇…주년을 맞았다. 「佛青」은 1920년 進代思…◇
◇…潮와 新學問에 민감했던 당시 승려들을 동…◇
◇…심으로 萬海 韓龍雲이 창설, 佛敎界의 維新과…◇
◇…올바른 사회건설에 진력해왔다. 반세기를 넘…◇
◇…는동안 「佛青」이 벌여온 운동과 현재의…◇
◇…움직임을 알아본다.

佛敎界 維新코자 창설돼

無秩序한 靑年敎育의 선봉

우리나라 佛敎운동은 그 연원을 敎界에 신진 改革派가 대두한 1920년으로 소급해서 말하게 된다. 당시 우리 불교계는 보수적인 守舊세력과 近代思潮에 민감했던 신진세력으로 크게 나눌수 있다. 舊體制에 대한 신진 세력의 도전은 時代的으로 반복되는 것이지만, 특히 1920년대의 상황은 심각한 것이었다. 韓日合邦, 3·1독립운동 등 민족적 비운과 자각적인 격동이 소용돌이치던 時代였기 때문이다.

불교계의 젊은 승려들이 스스로 佛敎維新을 주장하고 나선것은 당연한 시대적 요청이었다. 젊은 승려들의 佛敎維新운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것을 우리는 佛敎革新운동의 효시로 삼게된것이다.

불교유신운동의 이론적인 전개와 아울러, 그 조직화 운동은 萬海 韓龍雲이 그 중심이다. 그를 따르는 교계의 젊은이들이 그리고 中央學林 학생들을 편의상, 신진 改革派라고 부르기도한다. 물론 그들은 오늘의 佛敎운동처럼 在家信徒중심이 아니다. 모두가 上求보리 下化衆生의 길을 나선 승려중심이었다. 때문에 그들의 一次的인 목표도 佛敎維新에 있었고, 승려社會의 淨化와 단합에 있었다.

佛青운동의 효시를 이루는 첫횃會는 1920년1월 全南 松廣寺회의이다. 萬海를 비롯한 金法麟, 金擇昊 등이 모여 佛敎維新協議會를 결성, 朝鮮佛敎維新協議會를 결성했다. 이것은 교개혁신운동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조직화대로서 그의의가 있다.

그 이듬해 1921년엔 朝鮮佛敎維新會가 12월20일에 발족, 동년한 독적아래 혁신운동을 벌이게되어 차차 혁신의 물결은 높아졌다. 1924년 1월6일 만해스님을 總裁로 추대하고 제도개편을 했다. 아울러 朝佛青協會는 승려들의 단합과 新學問의 탐구에 전념하였고 당시의 지도자로서 만해스님을 위시하여 權相老, 白性郁, 林錫珍, 金擇昊등 젊은활동가들이 많이 배출하게 되었다.

만해스님이 불교계를 대표하여 33인의 한분으로 獨立宣言書에 서명, 시작되었다.

이는 그조직과 활동면에서 그당시 불청의 힘을 과시할만한 계기였다. 1931년 3월16일에는 전국에 散在한 佛敎青年단체가 하나로 통일되었다. 朝鮮佛敎總聯盟이 그것이다. 단합은 청년운동의 힘을 굳히 원활하고 신속하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아울러 불청운동을 전국적으로 一元化시키자는 기도였다.

1933년 2월20일에는 佛青내에 敎理와 敎育도원리연구를 담당하는 敎理硏究會를 설립하여 질적인 강화를 기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운동은 결국은 종단의 무관심과 업계의 탄압으로 빛을 보지 못했다. 이것은 불청의 발달사상 애석한 일이다. 더우기 말폭사변등의 탄압과 그에 따른 국내단체 강제해산등으로 그기능은 마비되고 말았던 것이다.

해방이후 불교인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새로이 불청조직에 나섰다. 1948년11월9일 「大韓佛敎青年會」를 결성, 회장에 金法麟을 선출, 조직의 강화및 활동의 원활화를 꾀하였던 것이다.

해방후 극심해진 종단세력의 분열틈에서 佛青은 重視되지 못한채 뜻있는 청년불교인들의 힘으로 명맥을 유지했다.

그러나 62년 문교부 佛敎産業관리법에 의하여 문교부에 종교단체로써 등록한 이후 부터는 佛敎親代化의 기자사업인 「우리말八萬大藏經」을 간행, 불교하는등 大學生佛敎聯合會및 중·고교학생회 활동에도 힘을 기우렸다.

65년도 제7대 金判錫회장이후부터 전국 시군 56개회를 조직, 회원 약 15만명에 달하는 방대한 조직으로 발전했다.

현재 佛青의 三大강령은 「우리는 부처님의 正覺을 이루어 참다운 인간이 된다」 「우리는 부처님의 正法을 밝히고 사회를 바른 나라로 만든다」 「우리는 부처님의 正道를 지켜 모든 이류를 건진다」 등이다. 과연 이 三대강령은 어느 일각에서나 실현되고 있을까.

거기엔 그나름의 自體反省이 뒤따라야 한다. 첫째로 종단산하의 각급단체를 종적, 횡적으로 조직을 法制化하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무질서한 단체범람은 어떤형태로든지 통제하고 사이비 단체를 정리시켜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국에 散在한 佛敎學生會의 장려와 佛敎大學등의 佛敎학교신설을 서둘러야하며 이들도 한 계통으로 一元化시켜야한다.

佛青은 長老들이 할수 없는 다방면의 문제점을 연구·검토하여 전국적인 「붐」을 일으키는 선무적인 역할에 뒤떨어짐이 없어야할것이다.

김형균 〈佛大 불교학과〉

근면 검소한 美國大學生

李載昌교수에게 들어본

수강사절 7~8일, X마스 15~20일, 「이스터·리씨스」 10일등 휴일이 상당하다.

!우선 「아」대학의 소개부터…

李=1847년 2월25일 창립된 州立대학으로 현재 2만1천명의 학생수를 가지고 있다. 이중 여학생은 8천명정도며 교수만도 1천명이 넘는다. 캠퍼스는 2백30만평의 대지에 8~90棟의 건물이 서있다.

「아」대학에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은 41개국에 이른다. 그중 약 4백명에 이른다. 인데 반수인 15명가량이 그곳 영주권을 가지고있어 사실상의 등록유학생은 30명정도이다. 흑자인 유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생활은?

李=숙소는 거의가 기숙사를 이용한다. 나도 기숙사에 있었는데 약8천명을 수용할 수있는 대규모다. 시설도 잘되어있고 미성년자·고령자의 구분과 결혼한 학생의 아파트가 따로 준비되어 있다. 학생 첫케이스로 유학온 金永徽군과는 같은기숙사에서 자주 만나곤한다. 학비는 대개의 유학생들이 장학금으로 공부하고있는데 거의 대학원생이다. 만일 장학혜택을 못 미달되어 장학금을 받게 되면 경우는 「알바이트」방법을 취하는데 여기에서 달러(弗)우량이 생겨 학원을 포기하는학생이 많이 생긴다.

참고로 등록금은 1·2학기 합해서 의국유학생 및 他州출신 1천2백弗, 아이오와출신은 半인 6백弗로 月別 분납한다.

여가선용은 연어장려폐문에 부흥學科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나 때로는 여행·파티등을 즐긴다. 미국학생들도 벽찬 과제 때문에 시달리는 마찬가지다.

!교수님의 연구와 그곳 대학교수의 활동상은?

李=나는 「原始佛敎의 社會的인 관계」란 연구제목으로 연구생활을 했다. 또 현번 강의도하고 미국교수들의 연구생활 특서울도 눈고 출판계도 盛市를 이루는 것같다.

!학생들의 학구열은?

李=무서울 정도로 피나는 한국학생들이 미국학생의 학구열은 그렇지못하다. 질의응답식 강의이기 때문에 미리 과제가 주어져 예습않고서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전문서적 도서관이 있고 완벽하게 장서가 준비되어 있다.

나는 한국학생들이 미국대학생의 학구열을 배울점이 많다고 그리고 반반큼만이라도 열심인데 이런데서 자주 뒤떨어진다고 특기할만한 것은 미국 여대생들은 검소하다는 것이다.

「학·팬츠」는 유행이라 많이 퍼졌으나 아주 검소하고 간단한 옷차림이다. 盛裝은 遲未여행이나 파티정찬때만 간단히 하는 것도다.

!대학축제 같은것은?

李=「홈·커밍페스티발」이 미리 정해진 스케줄에 의해 열리고 있다.

이때 각지에서 몰려든 인파들이 6만명을 수용하는 「스타디옴」을 꽉메워 구경하기도 한다.

!학생들의 「스튜던트·파워」 등태는?

李=反戰데모등 「스튜던트·파워」가 가끔일어나고 있는데 아간을 이용해 꼼주로 하는것이 일쉽다. 이들은 데모를 하더라도 위법이기때문에 경찰한테 반항하는 법이없다.

캠퍼스내에는 공산주의 이론을 신봉하는 「뉴·레프트」들이 전개하여 항상 사상적 대립을 초래하기도 하고, 그것이 골행등으로 옮겨지기도 한다.

학생들의 일반적인 경향은 기존질서에서 탈피하려 애쓰고있으며, 자꾸 나태해져 히피族化되어가는 것같다. 어쩌면 세계공통의 문제같아 제3자가 보아도 퍽 우려된다.

미국의 현실은 흑·백인종문제, 反戰데모, 학생들의 나태등으로 위협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

李=「하바드」나 「예일」등 유명한 대학의 이름은 별로 신통치 않다. 「네임밸류」에서도 그렇지만 재정난에 허덕여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州立化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수들의 강의에 대한 책임은?

李=계획한 진도에 빈틈없다.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휴강하는 예가 없어 학생들은 항상 긴장한다. 더라도 기어히 보강한다.

한편 이곳은 교수채용이 학교수회의 만으로 결정된다. 채용시 조교수는 계약制지만, 부교수이상은 년한수등에 구애안된다. 또 믿어지지 않을 것같은 사실은 5~10년간 재직해도 못본 대학총장 얼굴을 한번도 못본 교수가 얼마든지있다.

!교수와 학생간의 대화는?

李=전혀별로 없다. 학의 강의실과 교수실이 정해져 있어 자연적으로 자유로운 대화가 교수는 이루어진다. 학비는 대개의 유학생들이 장학금으로 공부하고있는데 거의 대학원 생이다. 만일 소정학점이 미달되어 장학혜택을 못 받게 되면 경우는 「알바이트」방법을 취하는데 여기에서 달러(弗)우량이 생겨 학원을 포기하는학생이 많이 생긴다.

!在美韓국대학생의 현실은 흑·백 인종문제, 反戰데모, 학생들의 나태등으로 위협한 것같다. 이러한 세계공통의 문제같아 제3자가 보아도 퍽 우려된다.

李=「私立大의 비등은?

!私立大의 비등은 대학의 이름은 별로 신통치 않다. 「네임밸류」에서도 그렇지만 재정난에 허덕여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州立化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수들의 강의에 대한 책임은?

李=계획한 진도에 빈틈없다.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휴강하는 예가 없어 학생들은 항상 긴장한다. 더라도 기어히 보강한다.

한편 이곳은 교수채용이 학교수회의 만으로 결정된다. 채용시 조교수는 계약制지만, 부교수이상은 년한수등에 구애안된다. 또 믿어지지 않을 것같은 사실은 5~10년간 재직해도 못본 대학총장 얼굴을 한번도 못본 교수가 얼마든지있다.

!교수와 학생간의 대화는?

李=전혀별로 없다. 학의 강의실과 교수실이 정해져 있어 자연적으로 자유로운 대화가 교수는 이루어진다. 학비는 대개의 유학생들이 장학금으로 공부하고있는데 거의 대학원 생이다. 만일 소정학점이 미달되어 장학혜택을 못 받게 되면 경우는 「알바이트」방법을 취하는데 여기에서 달러(弗)우량이 생겨 학원을 포기하는학생이 많이 생긴다.

!在美韓국대학생의 현실은 흑·백 인종문제, 反戰데모, 학생들의 나태등으로 위협한 것같다. 이러한 세계공통의 문제같아 제3자가 보아도 퍽 우려된다.

李=「하바드」나 「예일」등 유명한

어두운 비

高 錫 煥

축축한 밤이 피부를 할는다。」
어둠을 본만한 바람벽에
빗줄기가 닿는다。

성난 파도가 되어
스물 세개의 촛불이 출렁인다。」
온통 눈물로 얼룩진 지난날
사각형 사진첩 안에서도 밤새 비가 젖는다。」

노출이 심한 인화지보다
더 짙은 시선이 있는 좁은 창을 적셔놓고
별은 가슴으로 파고드는
어머니의 긴 한숨,
그 약한 말소리를 듣는다。」

가열된 아픔을 참아
귀를 막으면
수척해진 체온이 찢겨져 물로 화해 버리는 모습
외로움을 앓는 시간의 계단 위에서
더는 갈 수 없는 내가 있다。

이 깊은 빗소리를 가로 지르면
욕망으로 물한 어머니의 주름살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폐부로부터 터져나간 갈증이 아프다。」

문시도 갈증이 나도록 이 밤이 아프다。」

그물에 걸린 고기떼처럼
빗소리가 천정을 적신다。
그건
애타게 나를 탓하는 울음
끈끈한 옷자락이 달긴 물거품 속에서
맥맥히 흐르는 푸른 의지로
외부를 모두 차압당한 어두운 비가
닿는 만큼
나는 다시 엉태된다。」

〈文理大 國文學科〉

地域社會學校 운동

우리옛말에 이웃4촌이란 말이 있다。 이웃에 사는사람이 이웃보다 낫다는 얘기다。

4촌보다 낫다는 얘기다。 이웃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있는 현대 문명의 발달에 기인하여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은 날로 늘어가고있는 형편에있다。 인구의 도시집중에 비하여 이웃 간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대화가 단절되었다고 보겠다。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그위에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에 대화를 나누고 地域民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보자는 운동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운동은 地域民을 위한 지역민의 지역사회발전을 전개하는 운동이다。

신록의 계절 六월도 중순에 접어들었다。 얼마 있으면 청포도가 익는 七月。 즐거운 여름 방학이 시작된다。 성급한 친구는 벌써부터 여름방학의 계획을 세우기도하지만 방학은 역시 즐겁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시간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으니 말이다。 방학은 취미를 기르고 교양을 쌓는데 더 없이 좋은 시기이다。 어떤 친구는 산으로 또는 바다로 여행을 가는가 하면, 써클에서는 수련회다, 농촌 봉사활동이다 하여 갖가지 행사를 벌인다。 여기에서 地域社會學校라는 봉사활동 써클에 대하여 소개해 본다。

權 善 道 (工科大學 食工學科)

住民間 친목 건강이 목적

人間的經驗 확충 되어야

프로그램은 사회학특면 강조

흔히 세계 最大惡이라고 불리워지는 기아, 질병, 인종, 공해, 이런 제반분제의 해결 방책은 무엇인가?

식량은 산술평균적으로 증산되는데 비해 인구의 증가는 기아급수적이다。

현대 과학의 문명은 극도로 발달하여, 이른바 우주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완전히 해결 못하고 있는 질병 문제나 범세계주의적인 물질이 고 있지만 아직도 세계 어느곳엔가는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도시의 대기오염과 소음 그리고 하천의 오염등의 문제가 제기된 공해문제。

이런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몇 차례 여러 단체에서 회합을 가진 세계의 諸賢들은 교육에 결론을 짓고 말았다。

여기서 敎育이라 함은 상아탑에서의 교육과 「formal education」 즉 그룹활동의 교육을 말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상아탑에서의 교육은 우리나라의 체제에 있어서 국민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실시되니 諸論할 여지가 없다。 물론 敎育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있겠지만 말이다。

그러면 그룹활동 교육의 담당은 어디서 맡고 있는가?

이는 민간단체이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YWCA」「YMCA」「걸-스카웃」「보이-스카웃」「유네스코」等을 들수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단체에서 組織的으로 地域社會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는 못하다。

여기에 組織的인 그룹活動 敎育을 담당할 민간단체의 필요성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

그리하여 地域社會學校 후원회가 조직되었고 그 운동을 전개한지 3년이 되었다。 그러면 地域社會學校의 역사에 대하여 알아 보자。 처음 이 운동이 전개된 것은 미국의 「콜린트」市이다。

1936년에 「차알스 스튜어트 모트」씨는 「차알스 스튜어트 모트」재단을 설립하고 「콜린트」市 교육위원회에 재정지원을 함으로서 地域社會學校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초창기의 운동은 학교수업들의 연장 방과후 어린이 오락활동을 돕는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오늘 「모트·프로그램」은 많은 발전을 해왔다。 오늘날의 프로그램은 1、성인교육 프로그램 2、지역사회오락 프로그램 3、경제및 직업자 훈련과정 4、교과과정을 풍부하게 하기위한 실험 프로그램 5、모트 소년캠프 프로그램 6、예비숙녀 프로그램 7、모트재단 아동건강센터 8、올루규제위원회 9、년이 지난 오늘 「모트·프로그램」은 많은 발전을 해왔다。 오늘날의 프로그램은 1、성인교육 프로그램 2、지역사회오락 프로그램 3、경제및 직업자 훈련과정 4、교과과정을 풍부하게 하기위한 실험 프로그램 5、모트 소년캠프 프로그램 6、예비숙녀 프로그램 7、모트재단 아동건강센터 8、올루규제위원회 9、대학원과정및 봉사활동운련 프로그램등으로 다각도로 아주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한국에서의 지역사회활동은 어떠한가

한국에 있어서 地域社會學校 운동을 자금하게된 동기는 여러가지라 하겠으나 대체로 하나는 미국의 교육학자 「E.G.OISEN」등에 의해 소개된 1940년대 이후의 미국의 지역사회학교 운동이요, 또다른 하나는 「유네스코」가 만들어낸 이른바 기초교육과 관련하여 한국에도 뒤늦게 도입된 지역사회개발운동이라 할 수있다。 전자는 고 길환 란박사의 박사학위논문제목이 「학교와 지역사회」였다는데서도 알수있다。 그 조직이나 운영상의 원칙은 대체로 미국적인 패턴을 답습한것이라 할수 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어린이 미술지도, 어린이노래및 레크레이션 지도, 고전무용반, 바권도지도, 어머니를 위한 병풍 만들기, 레이스뜨기, 피부소질 법, 아침체조반, 성인교육반, 꽃꽂이, 아후강, 륙화등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다。

이의에 불우한 청소년을 위해 자매결연운동이라든 대학원과정및 봉사활동운련 프로그램등으로 다각도로 아주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한국에서의 지역사회활동은 어떠한가

한국에 있어서 地域社會學校 운동을 자금하게된 동기는 여러가지라 하겠으나 대체로 하나는 미국의 교육학자 「E.G.OISEN」등에 의해 소개된 1940년대 이후의 미국의 지역사회학교 운동이요, 또다른 하나는 「유네스코」가 만들어낸 이른바 기초교육과 관련하여 한국에도 뒤늦게 도입된 지역사회개발운동이라 할 수있다。 전자는 고 길환 란박사의 박사학위논문제목이 「학교와 지역사회」였다는데서도 알수있다。 그 조직이나 운영상의 원칙은 대체로 미국적인 패턴을 답습한것이라 할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지역사회학교를 형성하는 곳이 한국지역사회학교 후원회이다。

그리고 일선에서 여기를 선용하여 많은 대학생들이 직접 지도를 나서고 있다。 홍익대학생들의 어린이 미술지도와 우석대생들의 새동지역에 활동은 좋은 예가된다。 이밖에 하기방학과 동기방학엔 여름학교와 겨울학교가 열린다。 이때 지도자는 「지도자 월산」과 훈련과정을 통하여 양성된 지도자의 활동이 벌어진다。 이번에는 7월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에 훈련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그럼 지역사회학교의 문제점과 앞으로 운동방향은 어떠한가?

그지역사회내 모든 연령층의 광범한 교육적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그들의 인간적경험을 확충, 개선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학교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는 민주시민의 훈련과 정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사회학적 측면에서 한층 강조되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교육의 중요한 일환이란 점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어야겠다。 재정의 의존이 아니라 국민일부의 관심사에 국한된 이 운동을 나라전체의 관심사로 끌어 올리자는 것이다。

發 言

깨끗한 환경을

하 광 식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간다。 나는 입학후 학교의 모든 환경에 적응하며 생활해 온다。 그런데 학생을 위한 시설이 너무나도 미비하다。 강의실의 설비는 물론 분위기 그리고 휴게실의 혼잡과 도서실의 질서문란등…강의실의 청소는 해주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불결하다。 또 다 떨어진 지우개등은 강의하시는 교수님의 기분과 학생들의 불쾌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다 떨어진 지우개를 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은 상당히 불쾌하신 듯하다。

또 강의실 밖에서 노래를 하거나 잡담을 즐기는 학생이 상당히 많다。 이것은 강의가 비는 학생들이 휴식할 장소로 벤치나 휴게실등을 찾지 못한 때문이다。 한정된 벤치와 장소에 학생수는 많으니 복도에서 시끄러운 그들만 탓할수만은 없다。 교양학부 앞에 석탈잔디밭 주위에 둘러앉은 학생들을 많이 보게된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설상가상으로 휴게실이 하나로 줄었다。 이 시점에서 벤치를 많이 만드는것이 복도에서 떠드는 학생이나 잔디밭에 둘러앉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도서관은 그 면모가 외모로는 갖추고있는듯하나 분위기는 어떠한가。 2층 열람실에 들어가면 누구나 느끼는 일이다。 휴게실로 잘못알고 들어왔는지 희희낙낙거리 며친구와 농담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으젓하게 담배를 피고있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그것을 저지하는 사람이 없다。 학생들 스스로 자각해야할 것은 물론이다。 그러한점을 저학년이 물들기전에 빨리 시정해 주었으면 한다。 <法政大 法學科>

발 언

시원한 냉수와

조 석 규

나처럼 게으른 녀석에게는 학교에서 뭔가 해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러나 모든 학생의 입장에서 몇가지 정말 몇가지 선처를 해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할 것인가。

우선, 도서관 이층에 있는 휴게실 자리 (지금은 아무것에도 사용치 않는것 같지만) 를 상설 화랑으로 마련해주었으면 한다。 축제 기간중 「상미전」이 있었을때 참 반가웠다。 비록 작을지는 몰라도 우리 대학 안에서는 그런대로 무관할 것 같다。

교양학부에 관한 일을 몇가지 부탁드리고 싶다。 나는 갈증으로 학교를 그만둘 생각은 추호도 없다。 고맙게도 교양학부 현관앞에 작은 음료수 탱크가 있기는 하지만 계절은 바야흐로 여름이며, 그건 언제나 온차가 되어있다。 나는 학질 환자가 아니다。 여름에 온차는 싫다。 나에게 냉수를 달라。 물을 마시려고 뛰어 다녀야 하는 우리를 인식하여 달라。 그리고 수도와 더불어 변소가 있어야 겠다。 쉬는 시간이면 우리는 조금 번거러워진다。 「건물안에 변소를」 방송국 캠페인이 아니다。 남학생은 좀 나을지도 모르지만 여학생의 가는 길은 좀더 멀고, 좀더 힘겹다。 「THE LONG WINDING ROAD」는 우리의 쉬는 시간에도 있다。 이러한 작은 문제 (큰 문제일지도 모르지만) 가 해소된다면 우리는 조금 더 편리해질수 있을 것같다。 이러한 문제들마저 해소되지 않는다면 나는 가방대신 배낭을, 도시락 대신 얼음물이 든 수통을, 그리고 강은 강인데 못 건너다니는 강마저 가지고 언제나 등산을 하는 혹은 캠핑을 가는 정말 기분 나쁘도록 즐거운 覇岳을 오르내려야 할것같다。 <文理大 國文學科>

아리

▲…무서우리만큼 잔재주가 많고 도둑 않고 방도 잘 보고 이웃 나라 이웃 본받고 일본 사람들은 이따금 기발한 아이디어로 화제를 뿌리곤 한다。 얼마전엔 남녀한쌍이 완전히 벌거숭이가 되어 결혼식을 올렸대서 알궂은 폭속으로서의 보은바 있었다。 눈총을 받기도 했다。 그들의 기질은 다혈질다운 그들의 文化面에서도 재기 넘치는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기있는 책이 출판되어불티 날리듯이 팔리고있다는 소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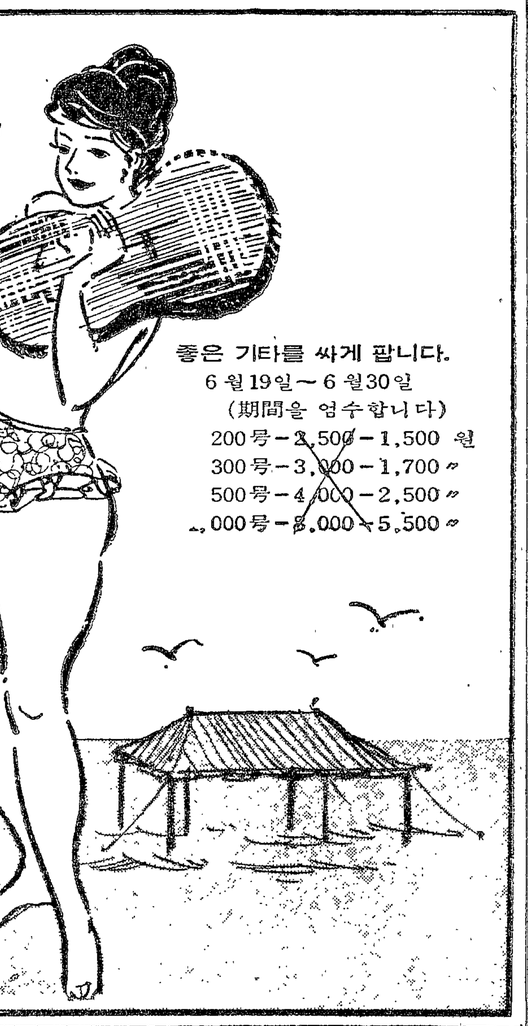
▲…인기있는책이란 바로 이런것을 말한다。 이른바 「베스트 셀러」나 다름없는 것일테지만 아무튼 그 착상이 재미있다。 책의 기획자의 말을 빌리면 『시중에 책은 범람하고 있지만 고심해서 만든 책은 팔리지 않고 하찮은 책들은 팔리고 있다』고 그래서 『누구나 자기 스스로 책을 써보고싶은 충동은 있는 것이며 책도 단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 보는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하얀책」을 했다』는 것이다。 기획자 학생들은 『얼마나 우리 독서 질문을 하고 자주 『들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면에는 대학주변의 서점들이 슬쩍바꾸고, 양장점등속으로 바뀌고, 대학생들이 책을 외면함으로써 사양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대학생들이 월간잡지류 또는 취직시험에 필요한 책이나 한 책이갖추어져 있지않아 곤란을 겪는다는것이다。

▲…9월 들어 시범케이스로 실시하고 있는 本校 도서관의 館外貸出이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읽을만한 책을 학생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대출해주지 못하고 있는 모양인 것이다。 유익하고 흥미있는 책은 많은데 도서관엔 읽을만한 책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곤란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와는 좀 별개의 것이지만 도서관을이용하는학생들중 비교적학구파에 속한다는 사람들의 말인즉 도서관에 읽을만한 책이갖추어져 있지않아 곤란을 겪는다는 것이다。

□인기 있는 着想□

권총과 애인과 기타



옛날부터 카우보이들은 권총을 차고 다녔지만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기타를 들고 다닌다.
젊은이들이 몰여 있는 곳에서는 기타와 노래
기타와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공원에서, 광장에서, 바다와 산에서..

기타는 애인처럼 몸에 안긴다.
기타는 포옹의 자세를 요구한다.
기타는 춤과 노래의 참여를 요구한다.

기타의 소리는 깨끗하게 다듬어진 것이 아니라
허피의 머리처럼 흩어져 얽혀져 있다.
기타는 오늘날의 젊은이의 애인이요, 무기다.

좋은 기타를 싸게 팝니다.
6월19일~6월30일
(期間을 엄수합니다)
200号-2,500-1,500 원
300号-3,000-1,700 〃
500号-4,000-2,500 〃
1,000号-8,000-5,500 〃

시대백화점 1층 악기부
전화 (23) 3171~9 (交)

夏期 放學中大學生을 爲한
電子計算組織 (EDPS) 特別講座

本計算所에서는 夏期放學을 利用하여 大學生만으로 EDPS 特別班을 編成 EDPS의 PROGRAMMING技法과 機械實習을 겸한 訓練을 實施하오니 이번 機會에 多數 參講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受講資格…①大學在學生에 限함 ②外國留學時 「알바이트」를 飾하는者
2. 受講人員…先着順 30 (專功科目無關함)
3. 受講期間…1971年 7月12日~9月11日까지 (3個月COURSE교육기간임)
(講義時間) 午後1時30分~4時30分까지 (3時間씩)
4. 受講內容…①PROGRAMMING CONCEPT COURSE 3주 (7·12~7·30)
②FORTRAN COURSE 3주 (8·2~8·21)
③COBOL COURSE 3주 (8·23~9·11)
5. 機械施設…①CDC 3200 SXSTEM ②FACOM-222 SYSTEM ③O.C.R PAGE READER ④IBM-KEY PUNCH機10대
6. 受講料…各 COURSE當 12,000원 (20% 할인액임)
(但5인이상 所屬學長의 추천서제출시 9,000원 (40% 할인액임)
※FORTRAN및COBOL은PROGRAMMING CONCEPT 이수자에 한함
7. 敎育場所…本計算所第一講義室 (경향각 설안내)
8. 申請期間및場所…9月10日限 총무부에서 接受함

特典: 本計算所는 1971年6月1日字로 총무처장관으로부터 公務員 任用施行令 제23조의 2및 경력평정규정 제10조의 規定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으로 認可를 받은 國內最大의 컴퓨터센타임

서울中區樂洞2街10 (대한극장앞 서울은행맞은편 조흥은행 옆)

財團法人 韓國電子計算所 ㉖ 4724~6

PICCADILLY
●아카데미賞에 빛나는 3大名優가 熱演하는 最高의 名作!
25時. 나바론을 뛰어넘는 <퀸>의 豪蕩하고 感動的인 最後最初의 傑作!
베스트셀러小說 드디어映画化
原作小說 로버트 크라이튼
世天然色 CINEMASCOPE
스탠리·크레마 製作·監督
THE SECRET OF SANTA VITTORIA
산타비토리아의 秘密
●25時의 안소니·퀸 비루나·리치 안나·마냐니
100萬병의 포도주를 둘러싼 奇想天外의 美人計術策!
사랑하는 女人을 나치占領軍에 바쳐야했던…
次週 피카디리
유나이티트·아티스트 超巨作

단편 희곡 〈3〉

꺼진소리

高 碩 明

여=(맥이 빠져 의자에 앉는다。)
남=그건 난 스스로 잘알고 있지 그래。 난 스스로만이라도 잘 알고 말고。 이밤이 지난면…。
여=…(이마에 손을 짚는다。)
남=이 밤이 지난면…、
여=(갑자기 생기가 돋며) 그래요。 (남편의 등뒤로 일어나가며) 우리 여행을 가기로 해요。 (남편의 어깨를 흔들며) 네? 여행말이예요。
남=여행? (멍청하게)
여=물소리。 아-새소리。 꾀꼬리。 종달새。 소쩍새。 아! 진달래…(눈을 꾸는듯한 모습이 된다。)
여=아! 지상낙원。
남=지상 낙원…。
여=어지럼지도 않고。 (비틀거린다)
남=만원 버스 속에서 질짝 취급을 안 받아도 좋고…。 (몸을 올츠린다)
여=(화분을 가리키며) 아! 저 꽃은 심어요。 여보 저 꽃은 버리기로해요。 쓰레기통에 버려요。 …아니 버릴 필요도 없겠지요。 여기 그대로 놔두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떠나요?。 네? 아)、「졸졸」물흐르는 소리…
-넷물소리 들린다。-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아! 늦, 개나리。 진달래。
-새 우는 소리 들린다-
아、새소리…。 (옆 의자에 앉으며) 여보、여행가기로 해요。 네?
남=여행?
여=네、여행이요。
남=여행이라니? 그래、참 그 자식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군。 소식 조차 없으니말야。 (일어 난다。)
남=그래。 난 스스로 잘알고 있지 그래。 그건 난 스스로만이라도 잘 알고 말고。 이밤이 지난면…。
여=(이마에 손을 짚는다。)
남=이 밤이 지난면…、
여=(갑자기 생기가 돋며) 그래요。 (남편의 등뒤로 일어나가며) 우리 여행을 가기로 해요。 (남편의 어깨를 흔들며) 네? 여행말이예요。
남=여행? (멍청하게)
여=물소리。 아-새소리。 꾀꼬리。 종달새。 소쩍새。 아! 진달래…(눈을 꾸는듯한 모습이 된다。)
여=아! 지상낙원。
남=지상 낙원…。
여=어지럼지도 않고。 (비틀거린다)
남=만원 버스 속에서 질짝 취급을 안 받아도 좋고…。 (몸을 올츠린다)
여=(화분을 가리키며) 아! 저 꽃은 심어요。 여보 저 꽃은 버리기로해요。 쓰레기통에 버려요。 …아니 버릴 필요도 없겠지요。 여기 그대로 놔두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떠나요?。 네? 아)、「졸졸」물흐르는 소리…
-넷물소리 들린다。-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아! 늦, 개나리。 진달래。
-새 우는 소리 들린다-
아、새소리…。 (옆 의자에 앉으며) 여보、여행가기로 해요。 네?
여=…(멍청한 눈초리가 된다。)
남=축어버렸나? (일어나 절으며) 편지 한 장 보내오지 않으니…。
여=편지? (고개를 갸웃거리다 부엌으로 나간다。)
남=아니、어제 소식이 왔었지。 틀림 없어。 그런데 그래、난 편지라곤 받은 적이 없는데? 그렇지、전화로도 연락이 없었어。 이상한 일이군。 (의자에 앉는다。)
=(부엌에서 들어오며) 웬 일일까? 그럴 리가 없는데…。 그 편지가 없어졌어요、여보。
남=(아내를 보며) 뭐? 편지? (깜짝 놀라 일어난다。) 편지가 왔단구 그랬지? 어서 가져와봐요。 어서가져와 보라니까! (만면에 웃음을띄며) 그래! 그자식이 편지를 보내주었구나。 그 자식이 편지들……。
여=편지들……。
남=아니、어제 소식이 있었던가? 그래、소식이 왔었지。 틀림 없어。 그런데